

# 경북도, 기업가형 대학 키운다... 6년간 2600억 국비 지원

산학연 선도 대학 육성사업 선정 대학별 강점·역량 따라 사업 추진 경운대·경일대 등 총 11개 대학



경북도청

교육부가 주관하는 '3단계 산학연 협력 선도대학 육성사업(이하 LINC 3.0사업)' 공모에 경북의 11개 대학이 최종 선정돼 2027년까지 매년 435억 원씩, 6년간 약 총 2600억원 규모의 국비를 지원받게 됐다.

1일 경북도에 따르면 여기에 선정된 대학은 경운대, 경일대, 금오공대, 대구대, 대구한의대, 안동대, 포항공대, 영남대, 위덕대, 동국대(경주), 한동대 등이다.

'LINC 3.0 사업'은 2012년부터 2021년까지 10년간 진행된 1·2단계(LINC, LINC+)의 후속사업으로서 산산업·신기술 분야에 부합하는 미래인재 양성과 고부가가치를 창출해 경제성장에 기여하는 기업가형 대학 육성을 목표로 한다. 특히 지역의 특정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상생모델을 발굴해 산학협력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등 동반 성장을 위한 대학간, 대학-지역사회 간 자생적 협력을 추진하게 된다.

대학들은 대학별 강점과 역량에 따라 ▲지역 미래산업 대비 인재양성 체계화 ▲고부가가치 창출 기업가형 대학육성 ▲산학연협력 지속성 제고를 위한 기반 강화 ▲함께 성장하는 공유·협업 생태계 조성 등을 위해 대학

별 맞춤형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이번에 선정된 포항공대는 지역에서 유일하게 기술혁신선도형에 선정돼 6년간 330억원(연간 55억원)의 사업비를 지원받게 된다.

포항공대는 차세대 '터프기술'로 대학 내 대부분의 학과와 전임교원이 참여해 차세대 ICT·바이오·헬스·첨단소재·미래에너지· 등 분야의 선도 모델을 창출해 나갈 예정이다.

'터프기술(Tough Tech)'이란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데 획기적 기회를 제공하고자 큰 비용이 들지만 더욱 포용적이고 평등한 경제를 만드는 기반을 제공하는 기술을 말한다. 첨단제조업, 차세대반도체, 청정에너지기술, 양자컴퓨팅, 합성생물학, 우주탐사 등 허버드대 벨퍼연구소가 제시한 개념이다.

경일대는 강점분야인 자율주행융합기술과 XR콘텐츠제작기술을 기반으로 지역 주력산업인 자동차부품산업과 전자정보기기산업의 성공적인 산업전환을 선도할 계획이다. 이번 사업으로 신산업 분야 3000명의 인재 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경북도는 국비확보에 따른 도비 대응자금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진행된 LINC+사업에는 지역 14개 대학이 5년간 국비 1550억원, 도비 47억원을 지원받았다.

/경북=김태우 기자 ktu3987@metroseoul.co.kr

## 지역 이모저모

### 영암군 배수개선사업 대상지구 선정

영암군은 서호면 금강·태백리, 학산면 독천리 일원 상습 침수지역 해소를 위한 배수개선사업에 '22년 신규 대상지구로 선정되어 국비 230억원을 확보했다.

해당 사업은 '84년 경지정리가 완료된 242ha 농경지에 배수장 3개 및 배수문 3개, 배수로 15km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22년 기본조사를 시작하여 '23년 하반기부터 본격적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그동안 영암군과 한국농어촌공사 영암지사는 전라남도와 함께 상습 침수지역 해소를 위한 배수개선사업의 필요성을 중앙부처에 지속해서 건의해 왔으며 그 결과 이번 2개 지구가 신규 사업지로 선정되었다.

/영암(전남)=김용학 기자 jijacecom@

### 경북도 농어가 107곳 태양광 설치 추진

경북도가 올해 '햇살에너지농사 지원대상자' 107농어가에 126억원의 예산을 지원한다. 햇살에너지농사 지원 사업은 경북도가 지난 2016년부터 추진해온 신재생에너지 정책 사업으로 올해는 지난 3월 21일부터 지난 달 18일까지 공모를 진행했다.

여기에 160여 농어가에서 신청해 햇살에너지농사추진단 심의로 사업의 적절성, 타당성, 설치장소 등을 평가해서 107개 농어가를 선정했다.

이 사업은 전국 자치단체 중에서 경북도가 최초로 신재생에너지 확대보급을 위해 추진해 오고 있는 역점사업이다. /경북=김삼복 기자

## 국가혁신클러스터 비연구개발사업 전남도, '최고 등급' 성과

나주혁신도시 중심으로 사업 추진 작년까지 179명 신규 고용 등 결실

전라남도는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의 '지역혁신클러스터 비연구개발(R&D)사업 1.5단계 1차년도 성과평가'에서 최고 등급인 '매우 우수'를 받았다. 이로써 전남도는 전년도 '1단계 성과 평가' 최고 등급에 이어 2년 연속 탁월한 성과를 거뒀다.

국가혁신클러스터사업은 지자체가 지역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혁신융복합단지를 지정하고, 투자유치부터 기업 정착까지 전주기를 지원해 지역 대표산업을 육성하는 프로젝트다. 현재 전국 14개 시·도에서 시행하고 있다.

전남도는 '에너지신산업'을 대표산업으로 선정해 나주혁신도시를 중심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2020년 더 많은 도내 에너지기업이 수혜를 받도록 합평, 영광, 장성 일원까지 추가 지정, 지원을 확대했다.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추진한 국가혁신클러스터비연구개발사업으로 신규 고용 179명, 투자유치 112개사, 사업화 매출 183억 원의 실적을 냈다.

지난해 산자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외교통상부, 아랍에미리트 대사관, 아랍에미리트 전력청의 긴밀한 협조로 개최한 '한국-두바이 에너지 위크(KOREA-UAE Energy Week)'에서 해외사업화 상담건수 196건, 36억 원 규모 수출계약 2건, 864억 원 규모 구매계약 2건, 업무협약 9건 등의 굵직한 성과를 거뒀다.

관련 기관의 긴밀한 협조로 원활한 지원을 하기 위해 전남도, 나주시, 한국전력공사, 전남테크노파크 등으로 구성된 '해외사업정책지원협의체'도 운영하고 있다. 그동안 정책개발, 컨설팅, 기획역량 강화 등을 지원해 도내 에너지기업의 정부 에너지공적개발원조사업 3건 수주 등 글로벌 연계성과를 이끌었다. /전남=양수명 기자 ysn6313@



밀양시가 '밀양비전 2040 장기종합발전계획 수립 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 '밀양비전 2040 장기종합발전계획' 수립

영남권 허브도시 재도약 방안 제시

경남 밀양시는 앞으로 20년의 비전을 제시하고 발전의 원동력이 될 기반 사업을 발굴하기 위한 '밀양비전 2040 장기종합발전계획 수립 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사)한국공공자치연구원의 용역연구진은 지난해 5월부터 1년간 각종 자료조사, 관계자와 전문가 자문, 현장

답사, 실무추진 TF팀 회의, 주민의견수렴 등을 거쳐 밀양이 영남권의 허브도시로 재도약할 수 있는 장기적이고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제시했다.

장기종합발전계획은 새로운 활력을 만드는 도시, 일상이 즐거운 살맛나는 도시, 나누고 실천하는 화합도시의 3가지 비전을 제시하고 5개 추진방향과 6개 분야 추진전략, 108개 세부과제를 수립했다. /밀양(경남)=이도식 기자

## 화순군, 농촌 돌봄마을 시범단지 조성

화순군 동면에 화순광업소 폐광으로 인한 인구감소와 공동화에 대응하고 통합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농촌 돌봄마을 시범단지'가 들어선다.

화순군은 농림축산식품부가 올해 처음 추진하는 '농촌 돌봄마을 시범단지 조성 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것이다.

공모 심사 과정에서 화순군은 동면 오동리 일대가 폐광으로 인한 지역 공동화, 지역 내외 돌봄 수요 등에 대응하기 위한 돌봄마을 조성 모델을 제시

하고 폐광기금의 활용, 돌봄 프로그램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농촌 돌봄마을'은 지역 주민, 고령자,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가 함께 일상생활을 하며 통합적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마을이다. 화순군은 올해부터 2024년까지 3년간 총사업비 222억 원을 투입해 '함께 가치를 실현하는 힐링 농촌, 녹색치유 거점'을 비전으로 돌봄 생태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화순(전남)=김태수 기자 ts7080@

도내 소비액의 40% 환급 등 혜택

경남도는 영화·드라마 등 영상물 도내 제작 활성화를 위해 지난해보다 확대된 '2022년 로케이션 인센티브 지원 계획'을 확정했다.

2019년부터 '로케이션 인센티브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경남에서 장편 영화나 드라마를 촬영할 계획이 있는 국내의 제작사를 대상으로 촬영·제작 기간 중 도내 소비액의 40%를 환급·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영화와 드라마 제작업 등 신고를 마친 사업자로, 해당 작품의 감독, 주연 배우, 제작진과 계약을 마치고, 순 제작비 중 도내 소비액이



MBC 수목 미니시리즈 '미치지 않고서야' 엔딩 크레딧

3000만 원 이상인 작품이다.

지원 항목은 촬영에 참여한 보조출연자 중 경남 거주자에 대한 인건비, 촬영을 위해 도내에서 지출한 숙박비·식비·유류비, 차량·장소·장비임차료, 세트장 제작비 등이다.

/경남=이도식 기자 metrobusan@

### 부산시 '어린이날 큰잔치' 개최

부산시는 어린이날 100주년을 맞아 오는 5월 5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 40분까지 영화회전당 야외광장에서 '제49회 부산 어린이날 큰잔치'를 개최한다.

부산 어린이날 큰잔치는 지난 2년간 코로나 19 확산 방지를 위해 온라인으로 개최됐으나, 올해 행사는 지난 19일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됨에 따라 어린이들이 코로나 19로 누적된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가족들과 함께 즐길 수 있도록 대면 행사로 진행된다.

/부산=장병호 기자 metrobusan1@

### 포항시 지방세정 종합평가 '최우수기관'

포항시는 '2022년 지방세정 종합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다.

경북도내 23개 시군중 1위다. 자주재원 확충과 지방세정 발전을 위해 경북도에서 매년 실시하는 지방세정 종합평가는 지방세 징수 실적과 체납액 정리실적, 지방세수 확충 실적 및 세정운영 기반조성 등을 평가기준으로 삼는다.

시는 이번 평가에서 평가항목 전반에 걸쳐 탁월한 성적을 거뒀으며, 특히 지방세 징수율 및 증감액 부분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 최우수상을 수상하게 되었다.

/포항(경북)=오대승 기자 ods08222@